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자료

- 순서 -

- I. 개요
- II. 결산
- III. 시상
- IV.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 V. 아시아영화펀드 결산
-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결산
- VII. 플랫폼부산 결산
- VIII.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게스트





I. 개요

1. 기본 개요

- 기간: 2017년 10월 12일(목) ~ 21일(토)
- 76개국 300편 상영 (2016년 69개국 299편 상영)
- 상영관: 5개 극장 32개관 (마켓 및 P&I 스크리닝 상영관은 제외)
영화의전당,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CGV 센텀시티, 메가박스 해운대(장산),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2. 총 관객수: 192,991 명

3. 월드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월드 프리미어: 99편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31편

4. 아시아필름마켓

- 마켓배지: 총 45개국, 658개 업체, 1,583명
- 세일즈부스: 총 23개국, 163업체, 65개 부스
- 마켓스크리닝: 총 14개국, 41개 업체, 68편, 73회 상영 (마켓프리미어 43편)
- 온라인스크리닝: 총 207개 작품 (영화제 상영작 172편 포함)
- 세일즈 참가사의 최초 신작 및 흥행작의 발표로 바이어들의 관심과 실거래가 다수 성사
- 올해 20회를 맞은 아시아프로젝트마켓은 역대 최다인 645회의 미팅 진행
- 투자사 및 제작사, 방송사, 드라마 제작사 등으로부터의 미팅이 줄 이은 E-IP 피칭과 북투필름



II. 결산

1. 영화제의 회복성장세를 확인한 해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비 관객수는 17% 증가하였고, 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영화인들이 방문하여 영화제의 회복 성장세를 확인함과 동시에 영화제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관객들의 사랑과 지지가 영화제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 폭넓은 관객층의 참여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시네키즈의 단체관람 증가, 회고전/특별전 영화에 대한 관람을 증가로 폭넓은 관객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야외 상영장에서 상영하는 오픈시네마는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며 매진을 기록한 작품도 등장하였다. 주말에만 편중되던 관객층은 주중으로까지 확산되어 다양한 관객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증명하였다.

3. 플랫폼부산의 안정적인 출발

여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시아독립영화인들의 공동성장 방안을 제공하고자 신설된 플랫폼부산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으며, 아시아의 젊은 영화인들의 연대와 네트워킹의 중요한 지표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플랫폼부산은 영화인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핵심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4. 산업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 최고의 VR 시네마 전용관 운영과 관련 컨퍼런스 개최로 일반 관객과 영화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 영화제가 산업적 트렌드를 보여줬다는 측면, VR 시네마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5. 내실 있는 거래의 장임을 재확인한 아시아필름마켓

전년 대비 참가자가 14% 증가하였고, 세일즈 참가사의 신작 중 다수는 바이어들의 관심과 실거래로 이어졌다. 20회를 맞아, 역대 최대 미팅 횟수를 기록한 아시아프로젝트마켓



(APM)과 국내외 영화업계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 방송국 등의 미팅이 줄을 이은 E-IP 피칭과 북투필름에서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유관 업계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6. 원스톱 독립영화제작지원 시스템 도입의 첫해

아시아영화펀드에서 새롭게 신설된 장편독립영화 제작지원펀드는 한국독립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만들어진 펀드다. 제작비와 후반작업을 지원해 주는 원스톱 지원방식의 프로그램으로, 그 첫 주자는 박정범 감독의 <이 세상에 없는> 이 선정되었다.





Ⅲ. 시상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1: <죄 많은 소녀> / 김의석(대한민국)

수상작 2: <폐색> / 모흐센 가라에이(이란)

심사평: 저희 심사위원단은 한국의 <죄 많은 소녀>와 이란의 <폐색>을 2017 뉴 커런츠 경쟁작 중 두드러진 작품이라 보았습니다. 신인 감독들의 10편의 영화는 모두 사법정의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타락, 물질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병든 영혼과 같은 사회의 어려움과 절망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많은 소녀>에서 우리는 절망과 자살충동에 사로잡힌 10대 여학생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일상 생활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폐색>은 테헤란의 노동 계급이 겪는 고통에 대한 묘사로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두 편의 영화 모두 잘 짜인 각본과 생생한 디테일, 그리고 훌륭한 장인정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두 작품 모두 다음 영화가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작품들로, 영화를 다루는데 보다 능숙하면서도 신선하고, 고통과 마주하는 힘이 돋보였던 작품입니다.

심사위원단은 오늘날의 영화들이 어둠과 절망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언론에 의해 비춰진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 심사위원단은 미래의 영화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희망과 빛을 찾고, 그 희망과 빛을 그들의 영화로 끌어와 관객들이 다양한 삶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올리버 스톤 (감독 / 미국)
- 심사위원: 바흐만 고바디 (감독 / 이란)
- 아녜스 고다르 (촬영감독 / 프랑스)
- 라브 디아즈 (감독 / 필리핀)
- 장선우 (감독 / 대한민국)



2. 지식상

수상작 1: <마릴라: 이별의 꽃> / 아누차 분야와타나(태국)

심사평: 아누차 분야와타나 감독의 영화는 결국 시들어버리고 마는 바이스리꽃(bai-sri flowers, 태국의 꽃 장식)을 비유로 사용하여, 우리의 삶과 감정의 덧없음, 즉 '무상'이라는 주제에 불교적인 관점을 들여옵니다. 딸을 잃고, 그의 아내도 떠나버린 한 남자는 과거 다른 남자와의 로맨스를 다시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연인은 위독하고, 남자는 '가치 있는 수행'이 이 병을 물리칠 것이라는 소망에 수도승이 됩니다. 정교한 영화 언어를 보여주는 <마릴라: 이별의 꽃>에는 지식상 수상작,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마련이지만, 이 훌륭한 영화가 지금 이곳의 관객들에게 남긴 인상은 매우 클 것입니다.

수상작2: <금구모굴> / 요시다 다이하치(일본)

심사평: 올해 많은 지식상 후보작들이 일상 속 사회적 상호작용의 표면 아래 놓인 폭력성을 다루고 있지만, <금구모굴>에는 특별한 미묘함과 독창성이 돋보입니다. 이 영화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사회적 실험을 자행 중인, 평화로워 보이는 해안 마을을 절제되고 효율적인 연출로 그립니다. <금구모굴>은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잘 짜여진 극본, 그리고 금세 관객을 영화에 끌어들이는 몰입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 지식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토니 레인즈 (영화평론가 / 영국)

달시 파켓 (영화평론가 / 미국)

가린 누그로호 (감독 / 인도네시아)



3. 비프메세나상

수상작(한국): <소성리> / 박배일(대한민국)

심사평: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비범한 여성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정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선 여성들의 삶을 관찰하고 있는 이 작품은 정치적인 문제와 다양하고 활발한 캐릭터 사이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의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기찬 행동주의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영화 속 현명하고 강인한 노년의 여성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수상작(아시아): <센난 석면 피해 배상소송> / 하라 카즈오(일본)

심사평: 이 작품은 일본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의 뛰어난 작품입니다. 차분한 어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충격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진실된 언어로 쓰여진 문서이며, 10년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과,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고발이 담긴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많은 이들의 인내심에 관한 찬가이며, 그들이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행동주의의 실제 사례연구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 비프메세나상을 수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 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데이비드 월슨 (트루/폴스영화제 공동대표 / 미국)

난디니 람나스 (영화평론가 / 인도)

김영조 (감독 / 대한민국)



4. 선재상

수상작(한국): <대자보> / 곽은미(대한민국)

심사평: 이 영화에서 어린 운동권 대학생은 그녀의 인생에서 첫 위기일지도 모를 것과 마주하게 되고, 그녀가 하는 운동의 자잘한 디테일들과 그로 인해 초래된 혼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독은 주인공이 대자보 포스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녀의 감정 궤도까지 그려냅니다. 핸드헬드로 클로즈업된 인물의 얼굴과 가차없는 마커 소리는 억압적이고 숨막히는 느낌을 줍니다. 감독은 어린 여성이 겪는 감정적 고통과 그녀의 내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한 명확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구현합니다.

수상작(아시아): <마돈나> / 시닝 위나요코(인도네시아)

심사평: 이 수상작은 첫 시작부터 눈부십니다. 영화의 시각적 표현은 관객들을 매우 열광케 하는데, 이는 내리쬐는 햇볕, 바다의 짠 내음, 불안정한 바람, 그리고 너무도 명백한 폭력적 저의까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영화의 이미지와 서사 구조는 상상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줍니다. 감독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운 예술적 기교를 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영화감독의 목소리를 완전하고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젊은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 선재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라 프란시스 휘 (뉴욕현대미술관 큐레이터 / 미국)

안선경 (감독 / 대한민국)

우밍진 (감독 / 말레이시아)



5. 올해의 배우상

올해의 남자배우상: <밤치기> / 박종환(대한민국)

심사평: 'Acting is reacting... 단순함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박종환!

'정가영이 선택한 남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올해의 여자배우상: <죄 많은 소녀> / 전여빈(대한민국)

심사평: 죄 많은 소녀의 전여빈은 처절하고도 폭발적인 에너지로 영화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스크린을 압도하는 놀라운 배우의 탄생을 알린다.

*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권해효 (배우 / 대한민국)

김호정 (배우 / 대한민국)

6. KNN 관객상

수상작: <여름의 끝> / 조우취엔(중국)

7. BNK부산은행상

수상작: <심장소리> / 스티비 크루즈-마틴(호주)

8. 시민평론가상

수상작: <얼굴들> / 이강현(대한민국)

심사평: 올해 시민평론가상 수상작은 이강현 감독의 <얼굴들>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잘 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을 영화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 작품에 올해 시민평론가상을 드립니다.



9. 비전감독상

수상작1: <이월> / 김종현(대한민국)

심사평: 김종현 감독의 <이월>은 가까스로 계절 봄을 맞이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더 춥고 간절한 사람(민경)을 공감하되, 거리를 두는 데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게 냉정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닐까 싶어, 비전감독상을 드립니다.

수상작2: <밤치기> / 정가영(대한민국)

심사평: 정가영 감독의 <밤치기>는 섹슈얼리티와 영화에 대한 다른 관점과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여러 관점들과 시선들이 말과 말 사이에 자그마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정가영 감독의 이러한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비전감독상을 드립니다.

* 비전감독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강유정 (영화평론가 / 대한민국)
- 김성욱 (영화평론가 / 대한민국)
- 변성찬 (영화평론가 / 대한민국)

10. CGV 아트하우스상

수상작: <소공녀> / 전고운(대한민국)

심사평: <소공녀>는 경제적 고난에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젊은 여성이 타인들의 삶을 탐험하고 어루만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려 깊은 유머와 연민으로 관객을 웃기고 울리다가 지우기 힘든 여운을 남기며 끝나는 이 영화가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소중한 발견으로 다가가길 바라며 CGV아트하우스상을 드립니다.



11.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자유인> / 안드레아스 하트만(독일, 일본)

심사평: <자유인>은 이 시대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수평적인 시선으로 담아 내어 우리 시네필 학생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12.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수상작: <이월> / 김종현(대한민국)

심사평: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한국 청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날카롭고 깊은 시선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앤드미 기로에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 부회장, 호주 이란영화제 집행위원장, 학자, 교수 / 호주)

귀밍정 (타이베이영화제 프로그래머 / 대만)

신동일 (감독 / 대한민국)

13. 국제영화평론가협회(FIPRESCI)상

수상작: <살아남은 아이> / 신동석(대한민국)

심사평: 심리적 미묘함을 포착한 각본과 심오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연기가 훌륭했습니다.

*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키릴 라즐로코프 (IZVESTIA 칼럼니스트 / 러시아)

프레멘드라 마줌데르 (영화평론가 / 인도)

정민아 (영화평론가 / 대한민국)



14.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 스즈키 세이준 (감독 / 일본)

15.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 크리스토프 테레히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집행위원장 / 독일)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VI.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 마켓배지: 총 45개국, 658개 업체, 1,583명
 - 세일즈부스: 총 23개국, 163개 업체, 65개 부스
 - 마켓 스크리닝: 총 14개국, 41개 업체, 68편, 73회 상영 (마켓 프리미어 43편)
 - 온라인 스크리닝: 총 207개 작품 (영화제 상영작 172편 포함)
- * E-IP 마켓의 북투필름과 E-IP 피칭을 비롯한 다채로운 부대행사에 영화 투자·제작사, 방송사, 드라마 제작사 등 다양한 산업군의 참가에 힘입어 작년 대비 200여명이 증가한 1,583명이 마켓을 찾아, 원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프로젝트마켓 (APM)

- 2017년 프로젝트 수: 총 28편
 - 2017년 프로젝트 미팅 횟수: 총 645회
- * 올해 20회를 맞은 아시아프로젝트마켓은 역대 최다인 645건의 미팅을 진행하며 아시아 최대 공동제작·투자 마켓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화

APM 프로젝트 시상 결과

부산상: <찬란한 잿더미> / 부이 탁 추옌(베트남)

브라이트이스트필름 어워드: <복수> / 리샤오핑(중국)

CJ 엔터테인먼트 어워드: <홍바 드림즈> / 리리 리자(인도네시아)

롯데 어워드: <가솔린> / 오승욱(대한민국)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소라> / 윤가은(대한민국)

아르떼상: <비열한, 까칠한, 위험한> / 비삼 샤라프(프랑스, 레바논)

노르웨이사우스필름펀드상: <겨울만 있던 해> / 민 바하두르 밤(네팔, 프랑스, 독일)

모네프상: <가솔린> / 오승욱(대한민국)



E-IP 마켓 시상 결과 [『작품명』 작가 / 출판사 또는 제작사]

- NEW 크리에이터상(북투필름): 『밀주』 이정연 / 고즈넉이엔티
- NEW 크리에이터상(E-IP 피칭): 『탐정홍련』 이수아 / (주)위즈덤하우스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V. 아시아영화펀드 결산

1. 아시아영화펀드(ACF) 2017년도 지원 내역 - 총 24편

- 장편독립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총 5편

아시아프로젝트 4편, AFA 프로젝트 1편 / 각 1천만원 지원

-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지원 펀드: 총 6편

아시아프로젝트 3편, 한국프로젝트 3편 / 후반작업 현물지원

- 다큐멘터리 AND 펀드: 총 12편

아시아프로젝트 제작지원 8편 - 2편 각 1천만원 지원, 6편 각 5백만원 지원

한국프로젝트 제작지원 4편 - 1편 2천만원, 3편 각 1천만원 지원

※ 모든 선정작이 각자의 프로젝트에 대한 1 대 1 멘토링을 받고 서로 간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AND 프로그램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연다.

- 장편독립영화 제작지원 펀드: 한국 프로젝트 총 1편

제작비 2억원 및 후반작업 현물지원

- AND 프로그램: 10월 14일(토) ~ 17일(화)

① 스와 노부히로 감독(<오늘밤 사자는 잠든다>)의 "영상에서의 뜻밖의 발견" 특별 강연

② 구윤주 감독 <디어 마이 지니어스>: 'AND 타스코프스키 필름 아시아 탤런트 펀드' 지원작으로 선정

2. 아시아영화펀드(ACF)의 지원 확대 및 성과

- 장편독립영화 제작지원 펀드 신설

한국 독립영화의 안정적인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신설, 제작비에 2억원과 후반작업 서비스를 지원하여 원스톱 제작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 ACF 지원작품 성과

① 인큐베이팅 펀드

- a. 2012 인큐베이팅 펀드 선정작인 싱가포르 감독 부준평의 <견습생>이 프리부르그 국제 영화제에서 평론가상과 그랑프리 수상.



b. 2015 인큐베이팅 펀드 선정작인 팔레스타인 감독 안느마리 자시르의 <와지브>가 2017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돈키호테상, 청소년심사위원상, ISPEC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창'에서 상영.

c. 2017 인큐베이팅펀드 선정작인 네팔 감독 민 바하두르 밤의 <겨울만 있던 해>가 2017 아시아 프로젝트마켓(APM)의 공식 프로젝트로 참여, 노르웨이사우스필름펀드상 수상.

② 후반작업 펀드

a. 2016 후반작업 펀드 선정작인 부탄 감독 데첸 로데르의 <자비의 여신>이 2017 프리부르그 국제영화제에서 돈키호테상 특별언급, 스페셜심사위원상과 청소년심사위원상 수상.

③ 다큐멘터리 AND 펀드

a. 2013 AND 펀드 선정작인 스리랑카 감독 주드 라트남의 <핏빛 열차>가 2017 칸영화제 초청.

b. 2014 AND 펀드 선정작인 대만 감독 후항 후이천의 <엄마와 나, 신녀는 홀로 걷는다>가 2017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영화상 수상.

c. 2014 AND 펀드 선정작인 태국 감독 솜푹 칫게이손풍의 <열차 안의 사람들>과 메리 저마누스 사바 감독의 <사랑보다 위대한>이 2017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

3.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극영화: 8편 (아시아 4, 한국 4) / 다큐멘터리: 4편 (아시아 3, 한국 1)

* <살아남은 아이> | 뉴 커런츠 | 신동석

2017 ACF 후반작업지원 펀드, 월드 프리미어

* <아슈와타마-말이 울부짖을 때> | 뉴 커런츠 | 푸시펜드라 싱

2017 ACF 후반작업지원 펀드, 월드 프리미어

* <바다뱀> | 아시아 영화의 창 | 조셉 이스라엘 라반

2017 ACF 후반작업지원 펀드,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고요한 안개> | 아시아 영화의 창 | 장 마오옌

2015 APM 프로젝트, 2017 ACF 후반작업지원 펀드, 월드 프리미어, 2017 지식상 후보작

* <와지브> | 아시아 영화의 창 | 안느마리 자시르

2015 ACF 인큐베이팅 펀드

* <이월> | 한국영화의 오늘_비전 | 김중현

2017 ACF 후반작업지원 펀드, 월드 프리미어

* <히치하이크> | 한국영화의 오늘_비전 | 정희재

2017 ACF 후반작업지원 펀드, 월드 프리미어

* <인어전설> | 한국영화의 오늘_파노라마 | 오멸

2014 ACF 인큐베이팅 펀드, 월드 프리미어



* <나의 사랑하는 톤도> | 와이드 앵글_다큐멘터리 경쟁 | 주월 마라난

2013 AND BIFF메세나펀드, 월드 프리미어

* <레터스> | 와이드 앵글_다큐멘터리 경쟁 | 윤재호, 마르테 볼

2016 AND BIFF메세나펀드, 월드 프리미어

* <사랑보다 위대한> | 와이드 앵글_다큐멘터리 쇼케이스 | 메리 저마누스 사바

2014 AND BIFF메세나펀드

* <내 안의 블루스> | 와이드 앵글_다큐멘터리 쇼케이스 | 앤지 첸

2017 AND BIFF메세나펀드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결산

1. 기간: 2017년 10월 6일(금) ~ 10월 22일(일) (17일간)

2. 참가자: 100여명

(펠로우 15개국 24명, 교강사진 15명, 제작 스태프 및 배우 35명, 졸업생 및 기타 30명)

3. 지도교수진

- 교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일본)
- 연출 지도 교수: 부준평 (싱가포르)
- 촬영 지도 교수: 투라즈 만수리 (이란)

4. 주요 프로그램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노점상> No Jum Sang | HD | 20min | Color
- <연필, 돈, 무엇이든, 마이크> Pencil, Money, Whatever, Microphone | HD | 15min | Color

② 워크숍 및 멘토링(연출, 촬영, 프로덕션디자인, 사운드, 편집, DI)

③ 특강 7회 및 AFA & MPA 영화 워크숍

④ AFA 네트워크 1회: 총 참석인원 60여명

⑤ 연계 프로그램 참석 총 7회

- 플랫폼부산: ARRI 국제지원프로그램, 및 더 페스티벌, 프로듀서 토크: 존 카이퍼
- AND 프로그램: 특별강연(스와 노부히로)
- 아시아필름마켓 부대행사: 필름펀드토크
- BIFF 이벤트: 마스터클래스(올리버 스톤), 아주담담(촬영감독과의 대화)



5. 장학금 수여

① ARRI 장학프로그램

- 수상자: 테오 로자다(필리핀)
- 수상자: 자비울라 사이피 아스카리(아프가니스탄)

② MPA 어워드

- 수상자: 장 지아쥘(중국)
- 수상자: 아 시 위(말레이시아)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Ⅶ. 플랫폼부산 결산

1. 기간: 2017년 10월 14일(토) ~ 10월 18일(수) (5일간)

2. 참가자(플랫폼부산 배지): 148명(21개국)

3. 주요 프로그램

① 보이스 오브 아시아

- 참가 인원: 120여명
-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이란) 참석.
- 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일본 대표가 모여 아시아의 영화 산업에 대해 논의하고, 젊은 영화제작자들과 소통.

② ARRI 국제 지원 프로그램

- 참가 인원: 70여명
- ARRI의 국제지원프로그램과 아카데미에 대한 설명 및 아시아의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③ 밋 더 페스티벌

- 참가 인원: 110여명
- 패널: 베로 베이어(로테르담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카를로 샤프리안(로카르노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크리스티안 전(칸영화제 부집행위원장)

④ 필름메이커와의 만남: 라브 디아즈 - 라브 디아즈의 <사탄의 계절> 케이스 스터디

- 참가 인원: 80여명
- 패널: 라브 디아즈 감독(필리핀), 브래들리 리우 감독(필리핀),
프로듀서 비앙카 발부에나(필리핀)



- 개봉예정작 <사탄의 계절>을 통해 영화 제작의 각 단계를 설명.

⑤ 필름메이커스 토크: 지아장커 - 1997 지아장커 vs. 2017 지아장커

- 참가 인원: 100여명

- 패널: 지아장커 감독(중국), 영화평론가 허문영(한국)

- 지아장커 감독의 데뷔작부터 현재까지의 작품들을 순차적으로 회고하며 영화인으로서 지나온 과정들을 이야기.

⑥ 스몰토크

*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

- 주제1. 인큐베이팅 아시아_아시아지역 중심의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 주제2. 한-일 영화인 토크_영화산업의 표준 노동계약

- 주제3. 아시아여성 필름메이커스 토크

- 주제4. 한국지역 독립영화협회 네트워크



Ⅷ.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게스트

- 총 참석인원	5,232명
국내게스트	2,047명
해외게스트	490명
시네필	1,112명
마켓	1,583명

* 단순 참가(방문)자 제외 & 프레스 제외

